

KPPO News

KPPO 소식

KPPO 총회



6월 4일 (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KPPO 총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KPPO 활동과 행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KPPO의 임원으로, 또한 학년 대표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졸업생 어머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 화분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전체 총회 후에는 각 아카데미별로 모임을 갖고 올해 졸업하는 12학년 부모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과 대학 진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후배 부모님들이 선배 부모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3월 정기 모임

3월 6일 (화), KPPO 정기 모임으로 안진오 (ADI Global Talent Institute 대표) 강사님을 모시고 '글로벌 시대에 성공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부모들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학업적인 측면을 벗어나 좀 더 폭 넓은 시각으로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Korean Parents Partnership Organization (KPPO)

Email : bcakppo@gmail.com

www.academyppo.com/kppo.html

회장 인사의 말

새 학년의 설렘을 느끼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눈 깜짝 할 사이에 벌써 학년 말로 접어들었음이 실감이 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달려오며 BCA에서의 한 학년을 마쳐가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며 해가 갈 수록 많이 성장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부님들에게는 뒷바라지 하느라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졸업을 앞 둔 시니어들이 "College T-Shirt Day" 행사날로 각자 진학할 대학의 티셔츠를 입고 친구들과 BCA 교정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4년 동안 치열하게 열심히 BCA 에서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시니어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에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BCA 에서의 값진 경험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대학이라는 새롭고 더 큰 세계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배우며 자기의 길을 찾고 만들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KPPO 여러가지 행사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올해도 KPPO 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KPPO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술선수범하며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신 우리 KPPO 임원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KPPO 를 향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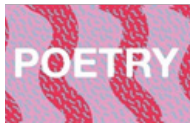
KPPO 회장 Sandy Kim 드림

BCA News



BCA학생들이 University of Toronto National Biology Competition 에 참가하여 International School부문에서 10위, 개인 부문에서 3위를 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 USA Junior Mathematical Olympiad에서 AAST 10학년 학생은 최고 점수를 받아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에 미국을 대표하는 멤버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 Carnegie Mellon University 에서 열리는 여름 프로그램에 4명의 BCA학생들과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BCA 학생들이 2018 William Paterson Poetry Recitation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8 US Physics Olympiad에 4명의 BCA 학생들이 참가하여 준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BCA Debate Team은 많은 학생들이 개인과 팀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로 최고의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AAPT Physics Bowl '18 대회 - 10여개국에서 7,200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9&10 학년팀과 11&12 학년 팀, 총 2팀이 출전하여, 이중 9&10학년 팀이 미국 수학/과학고 특수고 Region 에서 2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본교 11&12 학년팀은 과거 5년 연속 이 Region 의 상위 2팀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Georgia에서 열린 DECA National Competition에 23명의 BCA DECA 학생들이 참가하여 7명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었고 2명의 학생이 3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BCA History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World War I 을 주제로 Columbia, Rutgers, Ramapo 대학의 교수진과 함께 워크샵과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한 후 BCA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New Jersey SkillsUSA Championship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3명의 학생들은 Kentucky 에서 개최되는 National competition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3년 연속으로 "Model of Excellence at the Gold Level"로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USA Biology Olympiad 에서 10명의 BCA 학생들이 세미파이널리스트로 선발되어 20자리의 Finalists position을 놓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20명의 결선 진출자들은 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에서 다시 겨루게 됩니다.



BCA는 U.S. News에서 선정한 Best High School Ranking 부문에서 뉴저지 내에서 2위를 차지했고, 국내에서는 43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43 in National Rankings
- #2 in New Jersey High Schools
- #4 in STEM High Schools

학교 행사 및 PPO 소식

College Expo 대학 박람회



4월 16일, 17일 양일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전국 90여개 대학 관계자들이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각 학교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 24회 Annual PPO Picnic



매년 5월, 신입생과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해 열리는 피크닉 행사가 19일 토요일, PPO 주최로 피크닉 행사가 우선으로 운동장이 아닌 학교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Class of 2022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한 클럽 소개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재학생들에게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KPPO 학부모님들께서는 음료수 부스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KPPO에서는 새로 입학하는 한국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이나 KPPO를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Field Day



6월 8일 (금), BCA 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인 Field Day가 열렸습니다. 좋은 날씨에 즐겁고 활기차게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네 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운동 경기와 게임들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는 학생들이 모여 어셈블리 시간을 갖고 각 팀의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으로는 PPO에서는 햄버거, 핫도그, 샐러드바, 스낵 등을, KPPO에서는 불고기와 밥을 준비하여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푸짐하게 제공하였습니다. KPPO 부모님들 따뜻한 봉사로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Class of 2022 Induction Ceremony



5월 16일 (수), 학교 강당에서 2022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학교 소개 및 재학생들의 경험 등을 나누며, 신입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6000여명이 오픈하우스에 참가했고, 그 중 약 2000여명이 입학 시험을 치렀으며, 전체 총 입학생은 275 명입니다.

2017-2018 년도 회계 보고

6/12/18 기준

수입	
인수인계	\$ 747.79
Annual Membership Fee (회비)	\$ 5,280.00
앞치마 Sales & Donation (87장)	\$ 1,740.00
International Festival Fee (33명)	\$ 1,140.00
Athletic Dept.	\$ 400
수입 합계	\$ 9,307.79
지출	
신문 인쇄 & 발송 비용	\$ 310.34
10월 첫 총회 & 비품 구매 비용	\$ 151.78
International Food Festival Expense (진고개 & 한국정육)	\$ 1087.74
세미나 비용 및 감사 Gift Card & Janitor tip	\$ 120
Teacher's Luncheon 비용	\$ 300
Senior Award (KPPO 장학금)	\$ 400
Student Activity Donation (Relay for life(\$200.00)/Senior Fashion Show (\$100.00)/J2nd kppo meeting food donation(\$100.00)/9th gr potluk dinner (\$50.00)/ Field day (\$400.00)/ Student activity fund (\$1,000.00))	\$ 1,850.00
Expense for Int'l tasting, AWCA meeting & KPPO meeting	\$ 269.02
마지막 총회 food donation & Exp (Gift cards for senior moms)	\$ 602.62
Field Day food & other expense	\$ 2,023.89
지출 합계	\$ 7,115.39
잔액	\$ 2,192.40

★ 2017-2018 추가 회비 납부자 명단

Erica Hwang (ACAHA 2020)

BCA 대학 입학 현황

School Name	Applied	Accepted	Enrolled
Boston College	37	11	1
Boston U	70	42	6
Brown	54	6	3
California Tech	12	3	1
Carnegie Mellon	50	14	7
Columbia	71	9	6
Cornell	101	24	15
Dartmouth	27	1	1
Emory	51	16	6
Georgetown	23	5	1
Harvard	50	2	2
Johns Hopkins	44	6	1
M.I.T.	35	0	0
Naval Academy	2	1	1
New York University	86	47	19
Northeastern	142	84	12
Northwestern	57	3	2
Princeton	79	7	5
Rutgers (New Brunswick)	174	164	36
Stanford	47	3	2
Tufts	36	3	2
U Chicago	32	2	1
U Michigan	76	29	6
U PENN	80	5	3
U.C. Berkeley	40	18	6
U of Southern California	25	6	3
Vanderbilt	27	5	1
Washington Univ. of Saint Louis	48	9	2
West Point	2	1	1
Yale	55	7	5

KPPO 학년모임

★ 9학년 소식

9학년은 매달 한 번씩 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년 동안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고민과 성장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9학년으로서 학교 생활 적응과 대입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들 수 있는 4 번의 설명회와 2 번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일 년 동안 KPPO 모임을 참여하며 같은 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공통의 관심사와 정보를 나누며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10학년 소식

10학년은 매월 3번째 주에 학년 친목 모임을 가졌고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 주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11학년을 준비하는 여름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렴하여 몇몇 SAT, ACT 학원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 11학년 소식

11학년은 설명회와 친목 모임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월에는 "College Admission Strategy"라는 주제로 설명회가 있었고, 4월 27일 주니어 프롬 저녁에 어머니들과 친목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에는 "BCA 맞춤형 College Admission Seminar"를 통해,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힘든 마음들을 나누면서, 서로 많이 위로해주고 위로 받는 시간들이 참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 12학년 소식

살랑 살랑 부는 강바람을 느끼며 맛있는 점심, 지칠 줄 모르는 수다, 맨하탄이 바다로 보이는 에지워터의 한 레스토랑

에서 12학년의 마지막 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는 반가운 어머니들도 있었고, 12학년을 보낸 각자의 소중한 경험들을 서로 나누며 축하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쉬움과 기대속에 또 다른 4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있어 지난 4년이 너무 외롭지 않고, 즐거웠으며 많은 위안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BCA 2018, 영원하라!

KPPO Fundrasing

KPPO기금 마련을 위해 작년에 이어 앞치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및 각종 모임에서 구매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은 각 학년 대표에게 연락 바랍니다.

KPPO 장학금과 도네이션

Award Ceremony에서 KPPO 장학금을 졸업생 4명에게 수여하였고, 교장선생님께 도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 KPPO 시니어 장학금 수혜자

James Meiman (AEDT)
Chanyoung Park (AEDT)
Brittany Kang (AMST)
Gina Chun (AVPA)

★ 도네이션 내역

Field Trip Fund: \$1,000
Relay for Life: \$200
Senior Fashion Show: \$100
Athletic Department: \$400

★ 신문팀에서 알립니다

8월호 신문은 KPPO 회비 납부자와 신입생에 한해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학부모 참여 코너- 졸업생 학부모 이야기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유주영 (Brittany Kang, AMST2018)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역시 그 무엇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처음 BCA에 합격하여 너무 기뻐지만 공부에 시달리고 지쳐가며 오는 회의감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느라 힘들어하는 딸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아이가 BCA에서도 최고이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멀었고 자존감마저 약해지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11학년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아이는 처음으로 Bio Research를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Creative Writing Research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MST에 속해있는 아이에게는 Bio Research가 훨씬 좋은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싫다는 아이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만들어가는 스펙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하며 자신의 스토리를 써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BCA에서의 혹독한 시련과 시행착오가 아이의 대학 생활에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은 6월의 첫째 주입니다. 딸 아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이 편안해 보이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꿈꾸며 기대감에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랜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마치며

김윤영 (Juhyun Lee, AVPA 2018)

제 개인적으로,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불꽃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5년전 저는 한국에서 꽃샘 추위를 뒤로 한 채 두 딸 아이를 데리고 소위 말하는 기러기맘으로 뉴저지 땅을 처음 밟았을때, 4월임에도 폭설이 내려 학교가 클로즈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며 타국에서의 첫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동생이 뉴저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버겐카운티에 터를 잡은 터라 주위에 버겐아카데미라는 훌륭한 학교가 있다는 것도 큰 아이가 8학년에 올라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원 중학교에 다니면서 음악도의 길보다는 좀 더 큰 배움에 목 말라 했던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계획된 유학이 아니었기에 주위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타향살이 적응하기 바쁜 영어 못하는 아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버겐아카데미 open house 를 오게 됐고, 드디어 dream school 을 찾았다고 딸과 너무나 기뻐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타국에서의 첫 도전을 입학이라는 큰 선물로 받았습니다. 언젠가 신부님 강론 중에 아이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와 좋은 책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버겐아카데미를 통해 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제 저녁 큰 아이의 마지막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이런 좋은 환경과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행운이라 느껴졌어요. 졸업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소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런 소중한 밑거름의 배양분이 되어주신 버겐아카데미 모든 교사진, PPO, KPPO의 임원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며

강은숙 (Kevin Shin , AEDT 2018)

엊그제 BCA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설레임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학교 생활!! 그러나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 속에서 이겨야 하고... 아마도 그런 것에 많이 힘들고 속상했나 봅니다. 그러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힘없이 다니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비스트 클럽에 들어가고 난 후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힘들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열정적으로 4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BCA에서의 학교 생활. 특히 인턴쉽을 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끈기와 인내를 많이 배운 것 같아 이보다 더 힘든 과정이 찾아와도 거뜬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BCA에 다니면서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아이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새로운 출발, 대학을 다시 시작하겠지요. BCA에서 힘든 4년을 해낸 만큼 더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곳(대학)에서 열정을 다해 대학 생활을 잘 하리라 기대해봅니다.

학부모 참여 코너- BCA의 첫 해를 마치며

9학년을 마치며

Vivian Lee (Ariana Lee, ABF 2021)

지난 9학년을 회상하며, 문득 ‘난 왜 9학년 대표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잠기며, 단순히 극성스런 전형적인 Tiger Mom 아니 HelicopterMom 이어서? 결코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큰 아이를 대학 보내고 아, 내가 너무 첫 아들에게만 치중하지 않았는가? 둘째 딸에게도 무한한 관심과 애정이 있건만 늘 먼저 발등에 불부터 끄자는 이유로 둘째에게겐 열정을 퍼붓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일단 BCA에 대해 공부하자 그리고 아이와 소통하자.. 그렇게 참가한 첫 모임에서 얼떨결에 봉사직을 맡으며 또 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나와 아이가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어가며 마이너스와 B도 친근감있게 되어 버렸다. 그 때마다 우리 두 모녀는 숨고르기 호흡 조절을 하며 ‘괜찮아 나아질거야’ 하며 교육 켜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어차피 인생은 100 m 단거리가 아니고 끝이 없는 마라톤같은 긴 여정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든 9학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그 후엔 9학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BCA 는 나의 제 2의 고향

Hyunsook Kim (Lucas Kim, AMST 2021)

올 가을이면 10학년 Sophomore, , 한국으로 치면 고2가 되는 큰 아이! 이제 학기말이 다가오니 슬슬 다음 학기에 대한 걱정이 다가옵니다. 학기 시작, 인종 차별에 대한 사건으로 모임에 참석하며 수고하시는 KPPO 외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와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의 책임을 다시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간은 어느 덧 흘러 방학을 한 달여 남기고, 어느 순간 큰 아이는 요새 K-POP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접한 나의 아이, 조금은 놀라웠지만 BCA 에 들어와 같은 동양인 선배가 잘하는 모습에 본인도 힘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에게는 최고의 아들이지만 이 곳 학교에서는 평범한 모습에 이 시간 큰 아이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아이의 strengths 와 talents 가 무엇인지? 올 9학년 나의 아이가 이룬 accomplishments 가 무엇인지?

어떤 challenging experience 가 있었는지? 막상 미래에 대한 준비는 오직 아이에게만 맡기고 있는 저였습니다. 엄마는 그저 삼시세끼를 챙기며 도시락을 싸고 운동하는 아이 라이드를 하며 기다리고 잔소리하며 엄마가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묵묵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엄마가 묻는 질문에 아이의 짧은 대답이 오고, 어디를 보낼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큰 아이! 나의 품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옵니다. 내려놓음 연습을 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의 도움이 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함께 이끌어 갈 저 자신을 다시 재 정비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기도 바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CA.

9학년을 마치며

학부모님 (AVPA class of 2021)

6:50 am.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어둑 어둑한 현관을 나서서 스쿨버스를 타고, 해 질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서는 고픈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는 부족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죠. 겨우 겨우 눈을 뜨고 약기 연습, 학교 숙제, 시험 공부... 우리 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불을 끄고 잠이 드는 우리 딸! BCA 학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짠~하고 익숙한 모습이지요. 1년은 금방 간 것 같지만, 매일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낸 모든 class of 2021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 힘들텐데 할 수 있을까? town high school 로 돌아올까? 그래도 되는데...” 딸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내가 town high school 로 돌아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할거야. 그런데 BCA 에서는 해. 왜냐하면 나 혼자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 그래.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왜 BCA 를 보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오늘도 딸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른 아침 버스에 오르는 아이를 배웅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해준 고마운 친구들 그리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해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아이도 부모도 잘 버텼네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할 수 있다는 딸 아이 말처럼 모두에게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선한 BCA Community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